



더 많은 리포트 보기

셀바스AI (108860)

교육, 비대면 진료로의 사업 확장, 그야말로 AI 기업다운 사업 확장력

AI 디지털 교과서, 구체화 단계에 진입

- 2023년 2월 23일 정부 (교육부)는 2025년부터 교육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을 공식 발표. 기존 서책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AI 기술 확보가 미비한 발행사 (출판사)에게는 정부차원에서 AI 기업들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
- 디지털 교과서는 주요 교과목 (영어, 수학 정보)에 적용될 예정이며, 교사들은 AI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수업에 활용 가능할 전망
- 즉, 향후 AI 기술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 도구가 변화하며 관련 교육 및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관련 핵심 기업, 셀바스AI

-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뷰어 및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사는 셀바스AI로 다년간 관련 사업을 수행
- 셀바스AI 내 에듀테크랩은 2019년부터 교육부의 '지능형 학습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여러가지 기술 개발을 주도. 현재는 음성, 필기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접목해 연계 가능한 기술력까지 확보한 상태
-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제공과 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I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발해 타 업체 대비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갈 예정

여러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또한 구체화되는 과정

- 정부 (복지부)는 올해 2월 28일 2023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 현재 재진 환자와 의료 취약지 환자에 한해 전화 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
- 비대면 진료 시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의료계와의 마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가능성 때문. 비대면 진료는 환자를 대면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진 확률이 증가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사고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 진료 수단 다양화, 만성질환자 상시 관리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올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셀바스AI의 음성 인식 기술은 비대면 진료에서도 빛을 발할 기술

- 비대면 진료 시행 시, AI 기술과의 접목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 특히, 의료계가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이 대면 진료 대비 클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관점에서, 셀바스AI가 보유하고 있는 음성인식 AI 기술이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 특히, 셀바스AI의 주력 제품은 화자 간의 대화를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화하는 기능이 탑재된 제품. 비대면 진료 시행 시 '기록' 관련 기능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공산이 크고, 특히 '셀비 메디보이스'라는 병원을 타깃으로 한 제품 레퍼런스를 보유한 셀바스AI가 숨겨져있던 비대면 진료 수혜주로 각광 받을 가능성 존재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